

警報器는 探知하고자 하는 漏出가스의 種類와 設置場所에 따라 適合하게 選擇하고 有效하게 配置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檢知部 自體가 가지고 있는 脆弱性 때문에 動作試驗을 定期的으로 實施하여 恒常 最善의 狀態로 維持, 管理하여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國家檢定을 필한 警報器 生産業體는 1個所밖에 되지 않으며 앞으로 더욱 性能이 좋은 製品이 開發, 普及되어야 하겠고 制度的으로도 警報器設置에 대한 具體的인 技術

基準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보다넓은 弘報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參考文獻〉

- 化學工場(日): 第23卷, 第10號, 누설가스의 검지기술
- 化學技術誌MOL(日): 1981. 5월호, 누설가스의 특성과 가스 검지기의 설치장소 교차
- 고압가스(日): Vol. 17, No. 10(1980) LP 가스의 안전장치 개발 연구
- 設備와 管理(日): 1981 12월호, 가스누설화재 경보설비의 설치방법
- 電設工業(日): 1981. 4월호, 위험장소의 점검 검출 기구

(詩)

故之欲明明

鄭 基 澤

〈本協會·光州支部〉

지난날
밤과낮 국경없이
眞理의 渴求로
부두(埠頭)號笛소리
꿈결들으며
이미
소시적 쓰아올린
立志의 화살,
태양과녁에 맞추려
하느적거리던
여러날들

어느덧
첫사회생활 첫직장
화환의일꾼이된지
하늘빛깔 여러번
바뀌었던만
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보탬이 되었던가.

삶,
뚜렷한 취지와
확고한 목표의식으로
그토록 심뜻은
詩感을 떨리하고
가라마져 멀리하며
흐느끼는 오동잎소리도
잇은채 전념하던만
역시 무엇을 어떻게
가족에게 得을 주고있는가.

하늘을 우리르고
대지를 내려다보아도
부끄럽지 않기를
한껏
깊게깊게 뿌리박고
燒身하여 衆生의
滋養分이 되기를,
늘상
반성하고 후회없는
날들을 살아
누구에게나
써워진 골짜기에
깃눌립없는
不動心을 固守하였건만
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형제들에
힘이되었던고,

지금껏
先輩들 義氣를 좇고
人品을 닦고
업적을 증가하기위해
늘주린 마음으로
남아 “20”에 나라를 정복하려
젊음을 修身으로 불태우나
아는 것이라고는 “無”요.
얻은것이라고는 失과 불완전이라
아직도
죽음을 草芥같이
여기저 못함은

弱한 信念때문은
아님인지,

그러기에
註) “프롬”兄 말씀,
——부적절한 관념은
고뇌를 낳고
고뇌는 투쟁을,
투쟁은 결국
시간을 낭비케하여——

하여
기다리는 者들의
호소가 컷가에 맨돌아
아픈맘 헤적이며
늘그러하듯이
한귀걸 울주리며
中庸의 道를 찾는다.

註) 故之欲明明 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濟其家 欲濟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欲致其知者

註: 1) 에리히프롬(Erich From) 20세기 현대철학의 선구자로 헤겔, 프로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이로, 필자가 좋아하는 철학자임 (대표작: 소유나 존재냐)

2) 논어에 나오는 글귀로 필자가 즐겨 읊조리는 思惟의 活力 素임.